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6권 제2호(통권 제37호) : 194–215 ⓒ한국의료윤리학회, 2013년 8월
Korean J Med Ethics 16(2) : 194-215 ⓒ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August 2013
pISSN 2005-8284 eISSN 2234-3598

투고일: 2013년 6월 27일, 심사일: 2013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21일

한국 인문간호교육의 현황과 과제

박명희*

I. 들어가며

간호학은 인간의 전인적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인간과학이다. 인간과학의 초점은 인간 자체, 인간의 반응 및 상황에 대한 인간의 해석에 기반을 둔다. 간호의 대상이 인간이고 인간을 전인적 관점으로 인식할 때 자연과학적 요소는 물론 인문사회적 지식이 요구된다. 인문적 관점에서 간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지하기 위해 먼저 간호교육인증평가와 간호대학의 교육목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간호평가원은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해 간호교육기관의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제시하며 간호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자율적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간호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간호인력 양성을 촉구하고 있다. 2006년 실시되었던 1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은 졸업 후 간호사의 역량을 갖추는 것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과목 이수체계와 이수학점 비율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인문사회과학 교과목은 4개년에 8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중인 2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1]에서는 1주기 인증평가기준과 마찬가지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교과목 이수체계와 이수학점 비율을 적절하고 균형 있게 구성·편성하고 있다. 달라진 내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인문사회교과목을 충분히 개설하도록 제안한 점이다.

간호교육인증평가 내용에 따르면 간호교육에서의 학습성과와 간호사 핵심역량 함양이 성취해야 할 주안점이다. 성취해야 할 학습성과란 간호학 학사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졸업 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역량을 말한다. 중요항목으로 '다양한 교양지식과 전공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 '대상자의 간호상황에 따른 핵심기본 간호술을 선

교신저자: 박명희. 안동과학대학교 간호학과. 054–851–3545. 2002esthetic@hanmail.net
* 안동과학대학교 간호학과

1) 한국간호평가원.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집(간호학 학사학위과정). 서울 : 한국간호평가원, 2012 : 11.

택하여 실행한다',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다. 간호교육에서 성취해야 할 간호사 핵심역량이란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기관에서 간호사로서 직무수행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총체적 능력'을 말하며 구체적 주요항목은 '전인간호제공을 위한 교양 및 전공지식과 간호술의 통합적용 능력이며 간호문제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능력'[2]을 일컫는다.

간호교육과정에 대한 간호교육인증평가기준을 요약하면, '전인간호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간호상황에 따라 치료적 의사소통을 통한 총체적 간호문제해결을 하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내용의 기본 개념은 '다양성', '통합', '간호상황', '의사소통', '전인간호', '총체적', '전문직 간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인문학의 관련 범주이자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로서 인문영역과 범주가 강의의 교수요목뿐 아니라 임상에서의 간호행위에 요청되어야 함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목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는가를 간호대학의 교육목표와 개설과목 등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기 전에 이 글의 전제가 되는 인문간호학의 성격과 특징을 이론 차원에서 살피기로 한다. 그리고 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II. 인간의 본성과 인문간호의 성격

실증주의를 배경으로 한 의학은 인간 생명체에 대한 접근에서 '과학적 제한'이라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간호는 의학의 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서양간호학의 교육적 제도를 그대로 지속하면서 '간호=과학간호'라는 등식이 정론화된 듯한 생각이 들 정도로 과학에 편향되어 있다. 간호교육자체가 의학교육 속에 종속되어 있으며, 달리 말하면 의학이 간호학을 점령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간호학이 독자적인 자기 학문 영역 구축에 전념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 간호학은 과학에 집착하면서 현대의학의 제도를 쫓아가는 것이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다. 과학이 의학의 본질이 아니듯 간호학에서도 과학이 본질이 아니다. 과학과 기술문명이 만든 의료기기는 하나의 치유방법이기는 하나 인간적 돌봄인 간호의 본질과는 직결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간호과학이 간호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학은 원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간호학은 간호의 고유성을 간직할 독특한 정체성이 필요한 것이다. 간호학은 의학과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즉 간호의 독자적 영역인 'care'로 간호 단독의 중심영역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간호가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라는 본질 측면을 헤아려보면 간호는 적확히 인본주의 정신에 기반을 둔 돌봄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만남, 총체적 시각으로 간호를 바라보고 사유하며 실천해 볼 시점이다. 간호의 본질을 재조명하고 간호학의 위상과 정체를 바르게 정립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간호학 스스로 지닐 필요가 있다. 간호학 정체성 탐구에 성찰적 자세와 변화방안을 모색해내지 못하면 간호학은 활력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간호정체성의 재조명 탐구에 진전을 보일

2) 한국간호평가원. 위의 글(주1). 9.

수 있는 것은 참신한 접근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학문적 책무를 자극하는 데 충분하리라 본다. 간호란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이기 때문이다.

간호는, 인간 생명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인간의 느낌, 감정, 의도, 의지, 신념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 듯하다. 이들은 관계나 소통, 공감들과 연관이 깊다. 간호란 '인간이해'나 '인간성 회복을 돕는 총체적 돌봄'이라는 본질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비가시적 측면을 간과하는 것은 간호의 본질을 도외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생명이란 개념은 비가시적 범주의 측면에 더 많은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간호 시각 전환을 촉구하는 것은 인문지향의 정신이다.

간호의 언어적 의미는 관찰하며 보호한다는 의미로 'care, caring'을 본질적 개념으로 한다. 흔히 'care'의 의미를 '돌봄'이라고 표현한다. 한국의 전통적 간호개념은 '병상을 지킴으로써', '고통을 나누고', '환자의 '마음을 편히 해주는' 일을 뜻한다. 다시 말해 '환자 곁에서 함께 하는' 간호라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언명 속에는 인본적 의미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3)]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인간 본성을 아는 것이며 그것은 또 세계를 인식하고 관계구조를 파악하는 것이고 타자에 공감하는 것이며 함께 문화화되는 과정이다. 또 간호는 '인간을 그 자체로서 다룬다'고 한다면 그의 생활세계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간호학은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인간의 전 상황을 다루는 인간 과학이며 인간자체, 또는 인간의 반응 및 상황에 대한 인간의 해석을 그 바탕으로 한다. 인간은 자기해석적인 존재이며 상황에 대한 해석은 개인의 존재방식에 따라 결정된다.[4)] 간호는 돌봄 과정을 통해 환자라는 인간이 처한 상황을 마주하며 인간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환자가 겪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한 사항을 예로 들 수 있다. 최근 고통에 대한 연구에서는 고통의 주관성에 주목한다. 고통 속의 맥락을 찾아내고 주관적 경험과 자기해석에 관심을 모은다는 것이다. 고통은 온전히 환자의 몫이다. 예술가가 경험하는 고통의 의미는 일반인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니체는 '고통이야말로 인간을 창조성으로 몰아가는 자극물이며 내 생애에서 가장 아팠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나 자신에 대해 가장 행복하게 느꼈던 때'라고 하였고, 괴테는 '지나고 보면 고통은 기억 속에서 즐거운 것이 된다'라고 하여[5)] 예술가에게 고통은 고통이 아닌 것으로 의미를 두고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예술가는 고통을 맞이하는 순간이 자신의 예술적 재능이 크게 발화되는 시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그들에게 고통은 창조성을 위한 고통으로 전환된다.[6)]

돌봄의 간호를 위해서는 우선 몸을 알고 건강을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에 대두된 의료에서의 건강개념은 '정상'이 아닌 '변화'를 기준으로 규정된다.[7)] 건강이란 자기 스스로를 치유하는 유기체가 자기조직화의 원리를 따르며 역동적인 만큼 변화무쌍한 몸의 상태나 패턴이며 관계망이다.[8)] 프랑스 철학자 깡길렘은 그의 의학박사 학위논문

3) 박명희. 돌봄의 미학: 인문간호. 서울 : 푸른사상, 2011 : 19.
4) Benner P. Embodiment, caring and ethics: a nursing perspective. Scand J Caring Sci 1996 ; 8(2) : 30–36.
5) 필립 샌드블롬. 박승숙 역. 창조성과 고통. 서울 : 아트북스, 2003 : 39.
6) 필립 샌드블롬. 위의 글(주5). 39.
7) 강신익. 몸의 살림살이: 건강생태학과 생태의학. 민족의학연구원–인문의학 연구소 공동학술대회, 2009 : 15–29.
8) 강신익. 위의 글(주7). 23.

인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에서 "우리의 몸이 생명인 것은 정상적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뚜렷이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몸은 발달과정 중에 있는 있음이 아닌 되어감의 존재로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9] 인간은 세계(우주, 환경)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되어감(becoming)을 함께 창조하고 성장하는 의식이 있는 존재로 보았으며, 자신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간다.[10] 이처럼 질병이나 증상은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생명의 현상인 것이다.

질병은 일종의 의미이며 이해의 대상이다. 몸이 담고 있는 의미정보를 풀어보아야 하고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발생한 질병 그 자체보다도 그 사건에 이르게 된 삶의 과정과 예상되는 경과를 중시하려는 경향인 셈이다. 현재는 개인의 평균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생애주기(life cycle)의 틀에서 벗어나 생애경로(life course)의 관점에서 질병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이다.[11]

질병이 어떤 순간만의 문제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 시기 그 사람에게 발생한 질병을 그 사람의 생애 전체의 맥락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계적 관점을 넘어 생애사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12]

환자는 질병을 통해 세상을 알고 자아를 알아가며 질병경험은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낸다. 환자와 몸이 써가는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몸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그것이 환자의 몸에 드러내는 현상과 의미의 상호작용인 질병경험을 다루는 의학체계를 내러티브 의학(narrative medicine)이라 한다.

내러티브 의학은 몸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치유를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본주의 의학이다. 내러티브 의학의 지식은 환자의 몸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데 주로 인지적, 상징적, 정서적 지식을 말한다고 하였다.[13] 이같이 질병 그 자체보다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삶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 최근 의료인문학의 경향이다. 질병은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이다. 서사는 인간의 근원적 존재양식 중 하나이다. 환자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정리하고 극복하며 그 경험을 타인과 나누고 싶어한다. 질병으로 인해 변화된 자아와 몸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약어 서사는 질병체험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14] 질병체험서사는 환자의 관점에 따라 바라본 질병의 이야기이며 따라서 질병에 대한 환자의 설명, 해석, 이해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질병체험서사는 환자의 질병경험이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환자 자신의 고유한 삶의 이야기 속에 의미를 갖고, 그 경험이 환자의 과거와 미래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환자의 생활세계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15] 환자는 삶 속에서 살아있는 텍스트이며 스스로 표현하는 텍스트이자 자신의 몸 텍스트를 읽는 적극적인 해석자이기도 하다.[16] 가다머의 철학

9) 강신익. 의학(學), 의술(術), 의덕(德): 삶을 치유하는 몸과 마음의 공부. 철학연구회 추계학술대회, 2009 : 54–82.
10) Parse RR. A human becoming teaching–learning model. Nurs Sci Q 2004 ; 17 : 33–35.
11) 강신익. 피로사회의 건강과 치유. 한국의철학회 2012년도 가을 학술토론회, 2012 : 13–21.
12) 강신익. 위의 글(주7). 28.
13) 강신익. 위의 글(주9). 75.
14) 황임경. 질병체험과 서사. 의철학연구 2010 ; 10(12) : 3–28.
15) 황임경. 의학교육에서의 서사의 활용. 대한질적연구학회 및 서울대 간호과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2012 : 19–57.
16) 황임경. 환자, 의사 그리고 텍스트–해석학의 관점으로 본 의료. 의철학연구 2007 ; 3(6) : 117–137.

적 해석학에 의하면, 의료인은 환자와 의사의 만남에서 서로 텍스트에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해의 지평을 넓혀 나간다. 그 해석의 결과는 다시 우리의 삶에 통합되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것이다.[17] 의료인은 환자의 질병체험 이야기를 통해 정서적 허기, 잠재된 욕망이나 좌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힘과 용기와 같은 환자의 고유한 주관성의 영역에 다가갈 수 있다. 질병체험서사를 통해 의료인은 환자의 실존적 고통에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실천적 지혜와 공감 등의 태도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18]

간호윤리학자 개도우(Gadow S)에 따르면 내러티브는 환자와 간호사 양자가 함께 추구하는 좋은 삶을 향해 상호적으로 함께 구성해나가는 이야기라는 것이다.[19] 내러티브는 자기 삶을 해석하고 자기 삶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자기정체성의 구성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환자는 질병체험이 오히려 자기정체성을 지속시키는 자기존중의 기회를 만들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환자중심의 질병체험에 대한 생활사적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성찰을 유도하게 함으로 자기존중이 서로 교환되는 배려의 실천이 될 수 있다.[20]

돌봄 행위는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것을 창출하는 예술이며 조정(reconciliation)을 통해 새로운 총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인간이 괴로움으로 인해 상실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21] 돌봄은 간호의 가치를 형성하고 삶의 기초 전제조건이 된다. 삶을 경험하기 위해 사람 사이의 삶 속을 탐험한다.[22] 인간 삶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에 관심을 갖는 것이 간호[23]라고 이해하면서 서로 돌봄을 통해 살아있는 경험을 공유하면서 인간됨을 강화하는 것이 간호상황의 개념이다. 간호상황은 살아있는 경험 즉 환자와 간호사 사이에 일어나는 돌봄의 깊이와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다. 간호상황은 이야기, 시, 그래픽 아트, 춤 같은 미학적 매체를 통해 가장 잘 전달되는데 이는 텍스트를 통해 상황의 개방성과 생생한 의미를 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매체는 창조성과 감상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여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킨다. 또 돌봄은 간호사가 타인을 돌봄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인정하면서 그 사람과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함께 하는 것이다. 돌봄은 쌍벽을 이루는 아름답고 힘있는 파노라마이며 모두 인간의 가치로움과 새로운 생애를 이룩하려는 위대한 지도인 것이다.[24]

우리는 돌봄을 하면서 자주 생명성 담긴 환자의 서사를 들으며 환자와 공감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인간이 공감하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예를 들어볼 수 있다. 신경과학에서 최근 개발한 거울이론이 그것이다. 거울이론이란 인간은 공감에 능하다고 전제한다. 환자이야기를 듣는 것만 해도 그럴 처지에 놓여있다는 공감성이 발휘될 특정 뉴런이 반응한다는 것이다.[25] 거울신경

17) 황임경. 위의 글(주16). 122.
18) 황임경. 위의 글(주14). 3.
19) 공병혜. 의료현장에서의 내러티브윤리. 대한질적연구학회 및 서울대 간호과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2012 : 1–16.
20) 공병혜. 위의 글(주19). 13.
21) Eriksson K. Caring science in a new key. Nurs Sci Q 2002 ; 15(1) : 61–65.
22) Martinsen K. The openness of speech and evidence–dialogue with Jens Bydam. J Clin Nurs 2003c ; 4(17) : 36–46.
23) Boykin A, Schoenhofer SO, Smith N, et al. Transforming practice using a caring–based nursing model. Nurs Adm Q 2003 ; 27 : 223–230.
24) 박영숙, 강현숙, 김주현. 간호이론가와 이론 I. 서울 : 대학서림, 2006 : 509.
25) 강신익. 위의 글(주11). 20.

세포는 나와 타인을 연결하는 공감을 탄생시킨다. 거울이론은 인간과 세계를 설명하는 공감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돌봄을 하는 동안 공감에 필요한 경청이나 배려하는 마음, 신뢰감 형성 그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환자를 대하는 것이다. 치유는 공감을 통해서 가능하다. 돌봄에서 치유는 말보다 비구두적인 눈빛과 몸짓의 진정성이 환자에게 더 중요하다. '내가 이해되었다는 느낌'은 환자의 경험에서 소중한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나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었다는 것에서 그리고 나아가 자신이 품고 있었던 질병과 삶의 의미와 해석을 함께 나누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봄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사항이다. 궁극적으로 환자 이야기란 환자라는 사람이 질병을 겪음으로 인해 그의 삶까지 내포한 생활세계 즉 한 사람의 생애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를 담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환자 이야기를 듣는 것은 '각별함을 지닌 개별환자' 혹은 '유일한 인간'이자 '아픈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가 다분히 내포된 듯하다. 그가 직면한 질병과 그것을 둘러싼 삶이 펼쳐지는 상황과 현상을 헤아려보면서, 그리고 환자가 겪는 경험의 의미와 해석도 곁들여 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면서 환자 자신의 존재(being)에 그치지 않고 존재로서 되어가는(becoming) 과정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각 개인의 생애경험에 따라 독특한 경로를 걷는 것으로 해석하는 생애경로 의학(life course medicine)의 관점[26]은 인간을 이해하려는 학문적 방법이라 해석해볼 수 있다. 간호학에 인간학적 요소와 삶의 철학적 요소를 부가시킨다는 것은 환자인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에 접근하도록 도와준다.[27]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간호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피드백되어 돌아온다.

Ⅲ. 간호대학의 인문관련교과 현황

필자는 인문관련 교과의 현황을 알고자 전국 60개 간호대학과 간호학과 그리고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28]의 온라인상 홈페이지에 나타난 교육과정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간호학의 현황을 도출하였다<부록 1>.[29] 인문관련교과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나는 다학제(multidisplinary) 과목이며 다른 하나는 학제간(interdisplinary) 과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학제란 간호학문과 다른, 다양한 독립적 학문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아감으로 스스로 간호지식에 통합해서 돌봄 활동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학제간 과목이란 인문학과 사회과학 과목들로부터 간호학과 관련이 깊은 과목을 말한다.

개설된 다학제 과목으로는 '심리학의 이해', '심리학 개론', '사회학의 이해', '윤리학의 이해', '인류학', '인간학' 등으로 나타났다. 넓은 의미의 다학제 과목으로 포함될 수 있는 교과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사회와 문화', '인간과 역사', '생명의료윤리', '역사와 철학', '인간과 역사', '가치와 윤리', '의료윤리와 철학', '한국역사와 문화',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의료사회사업론', '현대사회와 인간', '인간의 철학적 이해', '윤리와 사상', '인간과 철학', '한국역사와 현대사회의 이해', '생명과 물질', '생명과 환경', '자연과 기술', '자연과 우주', '환경과 자연', '생태환경과 인간', '지역사회와 세계', '국가와 사회공동체', '세

26) 강신익. 위의 글(주11). 20.
27) 홍은영. 돌봄과 철학. 서울 : 수문사, 2013 : 134.
28) 기존 3년제 간호과에서 4년제 간호학과로 승격한 경우
29) 60개 간호대학 및 간호학과 인문관련 교과는 〈부록〉으로 제시함.

계화의 이해', '글로벌리더십' 등이다.

다음은 학제간 과목을 선택한 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간호교육의 교육적 배경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살피기 위해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 간호대학의 교육목표, 간호의 본질과 간호학의 특성 그리고 현대간호의 정향을 비롯해 간호학자들의 간호관(觀)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즉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으로 학습성과와 간호사 핵심역량내용으로 제시된 사항은 '전인간호를 바탕으로 간호상황에 따라 치료적 의사소통을 통한 총체적 간호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호대학의 교육목표는 '전인간호적 사고를 하는 전문직 간호사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간호의 본질인 '간호는 인간 이해', '간호는 인간성 회복을 돕는 총체적 돌봄'에 연계되는 내용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간호학의 특성인 '인간 그 자체를 다룬다'하여 그의 생활세계를 살펴보는 것과 간호는 환자의 '가치로운 삶을 보탠다'는 사항도 고려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대간호의 정향을 '삶의 현장이해를 위한 실천'이라고 제시한 미국임상간호사회의 견해를 참조하였다. 돌봄은 인간 삶의 전제조건으로[30] 간호학의 개념적 체계의 핵심적 현상은 삶의 과정[31]이며 인간 삶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에 관심을 갖는 것이 간호[32]라 한 외국학자들의 간호와 삶에 대한 관련성 내용을 포함했다.

이들 범주의 공통 핵심개념은 간호전문직, 전인간호 그리고 삶에 대한 배려 등으로 축약할 수 있다. 이런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인문소양의 기본요건과 관련된 학제간 과목을 선택하게 되었다. 선택기준을 중심으로 개설된 학제간 과목을 나열해보면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글쓰기, 인성과 자기개발, 삶, 간호와 전문직, 간호철학, 창의성 탐구, 문화와 간호 그리고 예술과 간호 등 9개 종류의 과목이다.

이상의 9가지 학제간 교과목들 중 서로 연관이 있는 과목끼리 묶어 영역을 구분하여 보았다. 첫째 영역에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으로 다른 과목과 대별되는 단독영역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영역으로 '인성과 자기개발', '삶' 그리고 '글쓰기'이다. 글쓰기는 자신의 내면보기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들 3개 과목이 연관된 한 영역으로 묶일 수 있다. 셋째 영역은 '간호와 전문직'과 '간호철학' 과목으로 이들 과목은 간호정체성과 관련된다. 넷째 영역을 '창의성 탐구', '문화와 간호' 그리고 '예술과 간호' 과목으로 구조화한다. 새로움과 창작이라는 공통 주제를 지닌 과목들이다.

현황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 영역인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제외한 8개 항목의 과목 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간호와 전문직', '간호철학' 그리고 '삶' 관련과목은 개설이 아주 희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각 영역별 현황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영역에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과목이 포함된다.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은 56개 대학의 대부분에서 개설하고 있다. 관련 개설과목으로 '인간관계 전략', '(치료적)의사소통실습',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론', '의사소통론(및 실습)', '인간행동과 의사소통', '의사소통과 상담원리', '인간관계와 간호', '의사소통/인간관계 및 실습', '인간관계론(및 실습)', '보건의사소통', '경청과 배려', '인간관계

30) Martinsen K. 위의 글(주22). 38.
31) Rogers ME. The science of unitary human beings: current perspective. Nurs Sci Q 1994b ; 7(1) : 33-35.
32) Boykin A, Schoenhofer SO, Smith N, et al. 위의 글(주23). 225.

및 의사소통론', '의사소통의 실제', '상담이론과 실제', '의사소통과 협력관계', '인간이해의 의사소통훈련' 등이다.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에 대한 과목을 2~3개 대학으로 나누어 개설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춘해보건대 간호학과의 경우 1학년과 4학년의 2개 학년에 개설하고 있다. '인간관계론'과 '인간이해의 의사소통훈련'이 그에 해당한다. 인하대 간호학과에서 2학년에 '인간관계론 및 실습' 과목을 개설하고 3학년과 4학년에 각각 치료적 의사소통과 치료적 의사소통실습을 개설한다. 울산과학대 간호학과의 경우 1학년에 '인간관계론'을 개설하고 2학년에 '의사소통' 그리고 4학년에 '상담이론과 실제' 과목을 개설해두고 있다.

두 번째 영역으로 '인성과 자기개발', '삶' 그리고 '글쓰기' 과목이 해당된다. 우선적으로 '인성과 자기개발' 교과는 17개 대학이 개설하여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 관련교과목은 '인성교육 1, 2', '인성과 리더십', '자기개발능력', '직업과 자기개발', '인간의 이해', '인간이해', '자신이해탐구', '간호와 인성', '인성과 자기개발', '자기개발과 리더십', '인성함양(세미나)', '자기계발', '자아성장개발', '대학생활과 자기개발', '생애설계지도', '인성과 예절' 등이 개설 중에 있다. 이어서 '삶' 과목은 5개 대학이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삶과 철학', '삶과 글쓰기', '참 삶의 길', '일과 보람 있는 삶',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삶과 죽음'과 같은 과목이다. 다음은 '글쓰기' 과목으로 28개 대학이 개설 중에 있다. 이와 관련된 과목명은 '글쓰기(와 토론)', '열린 생각과 말하기',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 '사고와 표현 1, 2', '말하기와 글쓰기', '사고와 토론', '독서와 토론', '대학국어', '우리말과 글쓰기', '(우리)말과 글', '문학적, 자연과학적 사고와 표현', '창의적 글쓰기와 말하기', '바른 말 고운 말', '분석적 사고와 글 읽기', '글쓰기의 기초와 실체', '사회계 글쓰기', '읽기와 쓰기', '발표와 토론', '논리적 글쓰기', '인간학과 글쓰기', '글쓰기와 말하기', '글 표현', '언어표현법과 문학' 등이다.

세 번째 영역은 '간호와 전문직(프로페셔널리즘)', 그리고 '간호철학' 과목이 포함된다. 먼저 '간호와 전문직(프로페셔널리즘)'은 '간호와 전문직', '세계보건의료와 간호전문직', '간호전문직 통합세미나', '전문직관', '현대사회와 직업관', '간호사 직업윤리와 가치관' 등의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13개 대학에서 개설 중이다. 이러한 현황은 간호정체성과 연관된 과목 개설이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게 한다. 이화여대 간호과학대학의 경우 1학년에 '세계보건의료와 간호전문직', 4학년에 '간호전문직 통합세미나' 과목을 개설 중이다. 다음은 간호철학교과로 60개 대학 가운데 4개 대학만이 '간호철학과 윤리', '간호윤리와 철학', '의료윤리와 철학'의 교과를 개설하고 있을 뿐이다. '간호철학' 과목은 간호정체성확립에 대해 메타적 성찰을 위해 필요한 교과임에도, '간호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개설이 아주 희소한 편이다.

네 번째 영역은 '창의성 탐구', '문화와 간호', '예술과 간호'를 포괄하는 범주이다. 우선 '창의성 탐구'는 8개 대학이 개설하는 과목이다. 관련과목으로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창의적 문제해결', '간호와 비평적 사고', '비판과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와 논리)', '분석과 비판의 기초', '비판적 사고와 간호(적용)' 등이다. 이어서 '문화와 간호' 과목으로 19개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다. 유사과목으로 '간호와 문화', '문화와 간호', '문화인류학', '다문화',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사회와 인간이해', '다문화와 가족', '다문화간호', '다문화복지', '다문화 건강', '다문화이해(와 간호)', '사회문화와 간호',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역량', '다문화사회와 돌봄' 등을 들 수 있다. 춘해보건대

간호학과의 경우, 다문화와 관련된 과목을 1학년에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역량'을, 4학년에 '다문화의 이해' 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그 다음은 예술과 간호에 대한 것[33]이다. 개설과목은 17개 과목으로 나열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많이 개설된 과목은 '문학과 예술'로 3곳 대학에서 열리고 있다. 동아대 간호학과에서 개설한 '간호와 예술'을 비롯하여 '문학적 사고와 표현', '문학의 이해', '서양미술의 이해', '인간과 문화예술', '음악의 이해', '음악감상', '음악과 생활',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예술의 이해', '예술 치료', '음악 치유', '미술 치유', '춤 치유', '문학 치유', '숲 치유' 등이다. 원광보건대 간호학과의 경우, '음악 치료'와 '미술 치료' 및 '숲 치유'에 이르기까지 5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목표와 학점 구조에 따라 개설과목이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인문간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적 시각으로 본다면, 인문간호와 연관된 과목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대학에서 설강하는 과목의 영역이나 내용만으로는 교육목적 달성이 쉽지 않다. 간호의 본질에 대한 설명 방법을 달리해야 하고, 같은 영역의 과목이라도 교육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제 간의 연구가 절실하다. 학제 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방법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Ⅳ. 인문간호교육의 문제점

필자는 앞서 선택한 학제간 개설과목을 중심으로 전국 간호대학과 간호학과 그리고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중 60개 대학을 무작위 선정하여 온라인상 홈페이지에 나타난 교육과정을 참조, 인문관련 교과과정의 현황을 파악해보았다.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9가지 항목의 과목 가운데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을 제외한 나머지 8가지 항목의 개설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전인간호를 하기 위한 인문적 소양을 배우고 익히는 데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과목은 대부분 개설되어 있는 편이나 유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설이 저조한 편으로 나타나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으로 개설되어야 하는 과목으로 '인성과 자기개발', '삶', '간호와 전문직', '간호철학' 등을 들 수 있다. '창의성 탐구', '문화와 간호', '예술과 간호' 등과 같은 과목도 개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간호전문직과 전인적 돌봄 그리고 삶을 이수할 수 있는 대다수 과목 개설이 부족한 현황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졸업 후 학생들이 간호전문직관을 지닌 간호사로서 위상을 지키고 간호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현대간호의 동향인 돌봄과 삶과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점이라 여겨진다.

현황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서 언급한 내용을 관련지어 검토해 볼 수 있다. 2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은 1주기 인증평가기준과 마찬가지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교과목 이수체계와 이수학점 비율을 적절하고 균형 있게 구성,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인문사회과학교과를 1주기 때의 기준 8학점에서 충분히 개설하고 이수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로서 1주기에 비해 2주기 때의 평가지침은 인문관련과목의 개설을 적극 강화하

33) 예술이나 문학은 간호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필자가 임의로 학제간 과목으로 분류한다.

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9가지 학제간 교과목이 포함된 4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학제간 과목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인간관계와 의사소통과목은 56개 대학에서 거의 개설한 과목으로 나타났으나, 그러한 과목을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유용성을 높여야 한다. 많은 대학에서 필수 개설과목처럼 거의 개설하고는 있지만 개설한 교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통에 대한 실제 혹은 실습이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거론될 수 있다. 또 2~3개 학년으로 나누어 개설하는 대학이 3개 대학으로 나타나 연계적 의사소통의 지식과 기술 습득이 제대로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관계와 소통은 돌봄에서 핵심적 요소이다. 환자의 고통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확한 의미전달이 필요하며 피드백 또한 요구된다. 의사소통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음은 환자가 표현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단서를 인지하게 못하게 될 우려를 낳는다. 따라서 의사소통과목의 비중을 고려한다면 이론과 실제가 겸비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 학년에 개설은 차치하더라도 가능한 한 2~3개 학년에 나누어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학과에서는 특정 과목을 전 학년에 걸쳐 개설하기를 권장하며 실행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번째 영역인 인성과 자기개발 그리고 삶의 과목은 상당한 중요도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개설이 적거나 희소하다. 우선 '인성과 자기개발' 과목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인성과 자기개발' 관련 과목의 개설이 충분치 않다고 본다. 60개 대학 중 17곳에서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인간의 속성, 인간본연 자기이해와 내면 분석 등 간호의 돌봄 관련성을 제고하여 더 큰 비중으로 개설해야 한다. '삶' 관련 과목은 5개 대학에서만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분히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삶에 대한 단독 과목이 필요하다. 환자 이야기 속에 질병과 고통, 삶이 들어있다. 환자 이야기를 잘 듣고 헤아릴 수 있는 과목을 선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삶과 함께 고통에 대한 내용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고통의 문제는 윤리성, 소통가능성 등의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가령 '삶과 고통', '삶, 고통과 돌봄'에 대한 과목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세 번째 영역인 '간호와 전문직', 그리고 '간호철학'에 대한 과목개설은 전체 60개 대학 가운데 각각 13개, 4개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어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들 교과들의 미개설로 학생들이 간호의 본질과 간호정체성을 익혀나갈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목표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간호대학이나 간호학과에서의 교육목표 중 '간호전문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교육과정에 대한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간호와 전문직(프로페셔널리즘) 관련과목으로 '간호와 전문직', '세계보건의료와 간호전문직', '간호전문직 통합세미나', '전문직관', '현대사회와 직업관', '간호사 직업윤리와 가치관' 등이며 13개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고 이는 간호정체성과 연관된다. 학생들이 간호와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인식, 지식습득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간호와 전문직, 전문직관, 직업윤리 등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들이다. 간호는 프로페셔널리즘을 통해 간호로서의 독자적 영역과 고유성,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인적 서비스로서의 간호전문직이란 전문지

식과 기술이 요구되고 여기에 덕성을 겸비한 인간적 실존을 다루는 실천체계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이야 말로 간호전문직의 위상을 확보하는 길인 것이다. 간호학문에서 경시된 부분 즉 인문적 시각을 강조해서 균형적 학문을 구성하는 것이 전문직으로서의 기능과 인격 형성에 기본이 된다. 간호학에서의 덕 윤리가 간호와 전문직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다. '덕의 부활'은 간호의 본래적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며 간호의 본령인 것이다. 다음으로 간호의 본질을 헤아리고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간호정신과 사상을 배울 수 있는 간호철학의 과목개설이 적다. 겨우 4개 대학에서 간호철학을 다루고 있다. 철학의 이해, 인간과 철학 등 개설된 유사과목에서 간호와 철학과 연관된 내용이 교수요목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간호와 철학을 연계된 교수요목과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네 번째 영역인 '창의성 탐구', '문화와 간호', '예술과 간호' 과목에 대한 문제점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창의성 탐구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8개 학교가 있다. 창의와 상상력은 인간 이해와 소통에 본질 국면이다. 개설된 경우라도 창의성보다 비판적 사고에 대한 과목이 대다수이다. 상황에 대한 논리적 판단에 따른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점도 있으나 윤리적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임상현장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개설된 교과명으로서 비판적 사고향상에 치우친 것은 창의성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라 본다. 다음으로 문화와 간호에 대한 개설이 적다. 개설되어 있다 해도 다문화의 이해과목으로 비중이 가 있다. 다문화 이전 문화의 본래의 의미부터 터득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와 간호는 대학이나 임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설과목이라 본다. 새로운 변화나 개척, 특히 간호의 본질 도입 등은 간호철학과 더불어 간호문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충분히 개설하되, 1학점 이상, 2개 학년으로 펼쳐 운영하는 것도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더불어 교수와 학생들의 간호문화 형성과 참여가 기대된다.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간호문화가 필요하고 이는 새 간호교육 창안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예술과 간호', '문학과 간호' 등의 개설과목이 매우 적은 편이다. 간호와, 예술이나 문학과 관련된 이 분야에 관한 과목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문학이나 예술, 영화 그리고 연극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 관찰과 사고력, 직관과 상상력 그리고 풍부한 인간성도 기를 수 있다고 여겨 이들 과목에 대한 개설을 적극 권장한다.

다음으로는 간호대학이나 간호학과에서 인문관련 교과 개설도입이 어렵거나 충분하지 못한 전반적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고정화된 간호과학적 사고는 인문적 시각의 간호부재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분히 의학에 종속된 결과이기도 하고 이로 인해 간호정체성이 결여된다. 또한 미국식이 선진간호라는 생각으로 서양간호식 교육과 실무제도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간호의 본질을 잊어버린 상황이 되어, 인간을 이해하고 총체적 돌봄을 하기 위한 준비가 미비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인문적 시각으로의 간호를 할 수 없음은 자기주체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익숙함에서 벗어나려는 용기가 부족하고 기존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어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간호에 대한 전문직(프로페셔널)이란 자긍심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도덕과 윤리의식이 미흡할 수 있으며 직업관이 부족한 상태에서 돌봄 활동을 하는 경

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것이다. 나아가 대학과 임상에서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문화적 성향이나 취향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교수의 큰 용기가 요청되기도 한다. 인문간호에 대한 교수의 인식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 임상의 변화의 장을 개척할 책임과 용기가 시급하다고 여긴다. 대학의 학장, 학과장 그리고 간호부장의 마인드가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며 이들의 혁신 개혁안이 요구된다. 소모임 결성 등으로 인문간호(학)의 도입과 활성화를 부추기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한 발자국 나아가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인 각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식이 재반영될 필요가 있다. 대학과 병원에서는 간호의 본질을 헤아리는 나이팅게일 재연식 거행도 필요하다고 본다.

V.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앞절에서는 III절 현황에서 파악된 점을 중심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인문간호 관련 과목은 단계별로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학점수는 적게 하되, 관련 과목수를 늘려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각 개설과목은 기초내용을 위주로 다루며 차츰 심화된 내용으로 구성해가는 것이다.

인문간호 관련 교육내용의 구성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문간호학의 도입과정은 기존에 운영하는 과목과 학년 배치도, 새로 추가할 과목 등 재구성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2주기 간호교육 인증평가 기준에 제시한 교과목 이수체계와 이수학점 비율에 따르면 전공기초 20학점(18~26학점) 중 인문사회과학교과는 8학점 이상 이수를 명시해 둠에 따라 자연과학교과는 12~18학점이 배정되게 된다.[34] 인문사회과학교과를 1로 둘 때 자연과학교과는 1.25~2.25배(평균 1.5배)의 교과과정이 개설됨을 알 수 있다. 이로서 자연과학교과와 인문사회과학교과의 균형적 배율이 요구되며 인문간호교육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인문관련 교과의 개설이 더 필요하리라 본다. 간호대학 내지 간호학과 내 교과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구체적 계획안을 만들기를 기대할 수 있다. 학과회의를 통해 교육과정 내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배정 비율을 논의하고 재조정해나가는 단계가 필요하리라 본다. 우리는 임상과 더불어 대학에서도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문도입의 타당성을 인지하고,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성찰적 자세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간호교육 인증평가 기준에 제시된 인문사회과학교과목은 단 4개 과목으로 의사소통론, 인간관계론, 성장과 발달, 인간심리의 이해이다.[35] 대학별 자율성 제고에 따라 인문사회과학교과를 유연성 있게 추가 개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덧붙인다면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제시한 간호교육과정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인문사회과학교과에 대한 이수 영역을 '충분한 개설'을 넘어서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 영역인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과목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 간호교육 인증평가 기준에 나타난 4개 인문사회과학교과목 중 절반이 소통과 관계를 차지하여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에 대한 의미와 중대성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과목의 이론과 실제의 중요성과 연계성을

34) 한국간호평가원. 대학용 편람–2013년도 상반기 간호교육 인증평가. 서울 : 한국간호평가원, 2013 : 38.
35) 한국간호평가원. 위의 글(주34). 38.

감안해 볼 때 이 교과에 대한 운영방식에 대해 검토는 긴요한 요청사항이다. 특히 임상에서의 '관계와 소통'의 의미와 중요도를 감안하면 실용방안과 유용성을 연구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과대학에서는 의사와 환자와의 소통 교과목은 전 학년에 걸쳐 개설할 것을 권장하며 실행하고 있는 편이다. 의사소통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함께 이루어지는 효용성 교육이 요구된다. 의사소통이 전 학년까지는 아니더라도 2개 이상의 학년에 걸쳐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사소통은 이론과 임상이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기술교육에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모색해 보아야 한다. 강의식교육에서 토의식 방법으로 소그룹으로 간호상황에 주제를 정하고 이에 대한 의사소통을 실제로 행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소통은 변화를 추동하는 힘이다. 변화를 위한 관계는 신뢰감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신뢰는 자기정직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자기정직을 일깨우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자신을 바르게 보고 밝고 맑은 심성으로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험도 가지도록 유도해 볼 수 있다. 전자기기에 매달려 기기와는 소통을 하면서 정작 자신과의 대화는 부족한 학생들에게 인간을 포함한 자연과 친숙해지도록 권유하는 것도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자연친화적 사고와 자연동화적 삶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요구된다.

두 번째 영역인 '인성과 자기개발', '삶' 그리고 '글쓰기' 과목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성과 자기개발 개설이 충분치 않다고 여겨지는데 간호의 돌봄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큰 비중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본다. 인성과 자기개발을 하기 위한 자기이해와 내면분석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쓰기는 자신의 몸과 마음, 정신 그리고 삶을 추스르고 간추리는 시간이 된다. 자기귀향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자기이해가 되어야 타인 돌보기도 가능해진다. 돌봄을 하기 위한 인본중심, 인문적 시각의 간호를 넓혀나가는 데 시간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

나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한 습관을 지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정직에로의 길을 가도록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한다. 일기를 써보고 시 읽기와 낭송 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성과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감성개발의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풍부한 인간성을 지닌 자신을 만들어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교육과정 구성과 실천에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이 싹트도록 해주며 아울러 타인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의 관계성찰을 위한 과정을 거쳐보도록 권유해줄 수 있을 것이다.

자신과 삶 그리고 간호를 연관지어 보도록 간호교육을 설계해야 한다. 자신의 진로, 자신이 하고 싶은 간호, 간호사상과 간호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스스로 간호와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여 간호에 대한 성찰도 해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신과 간호'라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삶과 관련된 과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삶 관련 과목의 개설이 현재보다 한결 많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돌봄 속의 삶 보기, 삶 헤아리기가 필수인 만큼 간호대학에서 중요과목으로 설정해야 한다. 간호는 '가치로운 삶을 보

탠다'라는 것과 미국임상간호사회는 현대간호가 나아갈 방향을 '삶의 현장이해를 위한 실천'으로 해 두어 간호현장에 삶의 요소가 필수 요목으로 내포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의학교육에서 삶에 대한 과목의 교수요목을 참조할 수 있다. 교수요목에 나온 삶에 관한 과목은 생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의 공감능력 갖추기를 위한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 목차를 살펴보면 '삶에 있어서의 생에 대한 인식', '의사의 삶과 인간의 생명', '생명과 문화: 우리시대의 문화 해부', '인간 생명의 본질', '생명의 의미와 존엄성', '생명과 삶의 기록', '동양고전에 나타난 인간의 삶', '생명, 삶 그리고 의학에 대한 자기성찰', '내가 본 생명, 삶, 그리고 의사들' 등으로 짜여 의학과 삶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익혀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또 고통에 대한 의학에서의 교수요목은 인간의 병에 대해 생물학적 관점뿐 아니라 병을 통해 고통 받는 인간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인간에 대한 공감능력을 목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세부사항으로 '환자들의 못 다한 이야기', '병에 대한 나의 인식', '주관적 고통으로서의 질병', '환자와 의사의 경험', '인간의 병에 대한 의료인문학적 이해', '고통받는 환자, 고통 그리고 의사'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삶 속에 내포된 것은 몸과 건강, 질병 그리고 그로 인해 야기된 고통도 삶이라는 범주에 스며있다. 삶 과목을 통해 고통에 대한 이해와 고통을 풀어나가기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간호하면서 신체적 통증에 대한 말은 종종 하지만 정서적, 실존적 고통에 대한 말을 떠올리지 않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돌봄으로의 깊은 연관성을 고려해볼 때 삶과 고통에 대해 심도 깊게 탐구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어서 글쓰기 과목에 대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글쓰기 과목은 많이 개설되어 글쓰기를 강화하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자기표현의 방식의 하나인 글쓰기는 자아를 찾아가는 수업이며 자기치유의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개설을 권장하고 싶다. 글쓰기를 통해 자기주체성도 살려나가고 더불어 간호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글로 나를 표현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한다. 글쓰기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헤아릴 수 있으며 자신을 발견하는 새로운 수업이 된다. 나와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와 세계와의 길을 열어가는 수단이다.

글쓰기로 인간에 대한 관찰과 타인에 대한 이해, 공감능력이 향상되어 간호의 본질로서의 인간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간호대학에서 독서동아리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책을 읽고 문학세계에서의 사고력과 관찰력, 창의와 상상력을 키워갈 수 있다. 이는 곧 실무에서의 환자 돌봄 상황과 연관지어져 판단과 분별력 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 번째 영역인 '간호전문직'과 '간호철학' 과목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언급해보고자 한다. 간호와 전문직, 그리고 간호철학 과목의 중요성을 상기하여 이들 과목의 개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기 단독교과로 부활되어야 할 것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이들 과목들을 간호관리학 영역으로 포함시킨 경우가 있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간호전문직관을 지니고 간호정체성을 수립해갈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 간호사는 간호이론과 지식에 근거한 행위와 체계적 접근을 통해 돌봄수행능력을 갖춘다고 볼 수 있다.

간호의 전문직관은 간호의 이념이나 가치, 본

질, 목적 그리고 환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가치관과 관계하며 이러한 가치관에 직업관을 결합시킨 것이 간호전문직관인 것이다. 간호전문직은 고유한 간호지식을 기초로 자율성과 동시에 책임을 수반한 지적 활동을 하며 간호정체성을 지닌다. 간호전문직 내지 간호와 전문화(professionalism)에 대한 언급은 간호정체성과 관련된 것을 서술해보려 하는 것이다. 간호전문직에서의 자율성이란 간호의 독자적 영역을 스스로 주도하여 발굴해나가거나 이끌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뜻한다고 본다.

현재 의학이 처한 상황은 간호학에도 참고가 된다. 의학계에서는 생의학적으로 편향하여 환자를 본다. 최신의료기기에 의거한 치료가 많아진 의학에 연계해 동행하는 간호도 이와 다르지 않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간호의 많은 시간을 기기나 기계와 함께 보내고 기기의 부호화 해석에 열중하다보니 환자와 멀어져가는 듯하다. 생명체에는 생명의 언어를 전할 필요가 충분하다. 간호는 환자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며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감성을 안고 보듬어주는 일이기도하다. 간호의 본질을 헤아리는 것이 간호의 가치이자 간호정체성을 다져가는 것이라 볼 때, 우리는 간호를 기기가 아닌 맨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인본주의적 정신과 마음으로 환자를 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간호철학은 간호가 이루어지는 세계의 전반에 대한 철학적 사유라 볼 수 있다. 간호철학을 간호의 본질에 대한 존재론적 탐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간호철학은 간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간호의 가치를 밝히는 기반이 된다. 간호교육과정에 간호전문직 교과나 간호철학 과목 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생들은 개설된 간호전문직 교과나 간호철학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간호정체성이나 간호사상을 익혀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와 간호전문직' 또는 '나와 간호철학'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해보도록 하는 것은 간호사상이나 간호철학에 대한 자기주체성 인식과 더불어 간호정체성 수립을 체득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곧 간호학의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적 주제인 간호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간호정체성의 관점에서 보면, 간호학 탐구의 책무가 요구될 수 있으며 스스로 변화해 보아야 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의 가치를 고려해볼 때 간호정체성에 대한 재조명이나 재조직하는 교육과정이 갖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영역인 창의성 탐구, 문화와 간호 그리고 예술과 간호과목 개설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선 창의성 탐구와 관련된 교과에서, 교과명은 '창의성 사고' 혹은 '창의성 탐구' 대신 '비판적 사고'라는 교과명칭으로 개설된 경우를 보게 되는데 상황에 대한 논리적 판단에 따른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점도 있고 윤리적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임상현장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비판보다는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인간적 이해와 상상력이 중요한 항목으로 부각된다.

다음은 문화와 간호과목 개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와 간호과목 개설이 적어 충분히 개설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화와 간호는 필수개설과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수와 학생들의 간호문화 생성에 능동적 참여가 기대된다. 문화는 새로움에 대한 수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새로움 받아들이는 문화로 대학교육에서 구심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간호와 관련된 문학이나 예술장르 등에 관한 과목개설에 대한 대안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들 과목은 동아대 간호학과에 개설 중인 '간호와 예술'을 제외하고 간호와 직접 연결되어 개설되어 있지 않다. 개설되어 있다하더라도 문학과 예술, 인간과 문화예술, 음악과 생활 등 일상에서 간호와 친근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학제간으로 분류해둔 것이다. 문학과 예술이 3곳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으로 개설되어야 할 과목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호와 결부된 문학을 비롯한 영화, 연극 등 과목이 다채로운 예술장르의 교과개설이 절실하다.

외국 의과대학의 경우를 살펴보자. 의대 교육과정 안에 '의학과 문학'에 대한 과목개설이 많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의학과 문학' 과목은 1967년 펜실베니아 의대에서 최초로 개설하였고 1970년대 초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흐름이 있었으며, 1982년 존스홉킨스 의대에서 'Literature Medicine'을 창간하기도 하였다. 1995년에는 미국 전 의과대학의 1/3 이상에서 '의학과 문학' 과목이 개설되었으며 '의학과 문학' 과목을 통해 문학텍스트의 속성을 의학적 상황에 적용하여 환자들이 나타내는 상징이나 은유 그리고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독후감을 통해 전인적 인간으로서의 환자이해와 공감도 만들어갈 수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들의 묘사를 통해 얻어지는 정서와 감성으로 조화로운 인간성을 형성해나가는 것이다.[36)]

미국의 의료인문학 내 문화교육의 유용성을 담아낸 프로그램인 내러티브 메디신(Narrative Medicine)은 최근 5년간 문학 텍스트 이외의 영화, 미술, 사진을 통한 내러티브 읽기/만들기로 타인의 이야기를 수용, 해석하고 그 상황에 공감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의 연마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37)] 1994년에 만들어져 현재 뉴욕 의대를 중심으로 구축해가고 있는 '문학, 예술 그리고 의학 데이터베이스와 블로거'는 오늘날 예술과 의학의 만남이 다양한 층위에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접목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38)]

최근 15년간 캐나다 보건/의학교육과정에 개설한 예술프로그램과 그 영향을 조사한 브리트-맥린(Brett-MacLean P)은 예술은 관찰과 해석, 소통의 기술 그리고 인간성 및 환자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효과적 수단이자 상상력과 공감, 자기반성을 돕는 지름길이라며[39)] 간호교육이나 간호현장에 예술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간호행위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감성적 인식, 즉 상상력, 직관, 감정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를 느끼고 상상하여 이해하는 돌봄이다. 환자 돌봄에 필요한 창의와 상상, 감성적 인식, 직관 개발 등은 문학, 예술, 영화, 연극 등을 간호와 연관시킴으로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간호예술은 인간에 대한 이해이며 탐구이다. 예술적 간호를 하기 위해서 창작적 직관(creative intuition)을 갖추어야 하며 창작적 직관은 간호행위의 추진력이 된다.[40)] 간호실무에서 예술성을 구현하면 개성적, 자율적 돌봄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창의적 간호를 할 수 있게 된다. 돌봄은 예술과정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일깨워 상호 공감하며 인격적 관계를 통해 함께 성취할 수 있는

36) 황임경. 위의 글(주15). 28.
37) 조유선. 의학교육과 예술의 창의적 만남–국외 응용연극 사례를 중심으로. 의철학연구 2009 ; 5(8) : 25–54.
38) 조유선. 위의 글(주37). 29.
39) 조유선. 위의 글(주37). 39.
40) 신미자, 강윤숙, 하나선. 간호역사와 철학. 서울 : 현문사, 2009 : 259.

것이다.

인문적 소양을 위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 내 연중행사의 하나로 간호문화프로젝트를 구상해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싶은 것이다. 대학마다 인문도입에 대한 인지는 하지만 실천이 그만큼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인문관련 과목개설이 부족한 것만은 명백히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대신 서둘러 준비해보아야 할 것은 강의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바로 간호문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문관련교과의 전 범위를 커버하지는 못하더라도 문화영역부터 시작해보고자 하는 취지이다. 문화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문관련 과목 개설의 필요성을 실감하도록 하여 교수와 학생의 공감대를 불러오는 전략도 되리라 생각된다.

간호문화프로젝트는 전시회, 연주회,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 작품준비에서부터 발표, 전시 후 소감 등은 작품스토리를 만드는 동시에 문화페스티벌 스토리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본다. 임상에서 환자의 생명성 담긴 이야기가 있다면 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작품이야기가 있게 되는 셈이다.

다음으로 삶과 학문에서 융합적 사고와 실천으로 인문지향의 길을 걷고 있는 필자의 몇 가지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생명과 문화를 탐구하고 실행하는 것은 삶과 더불어 학문에도 이점으로 작용하여 인문간호의 교육적 배경으로 만들어두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임상실습지도에서의 교육경험과 간호문화전 개최 그리고 사진활용교육(photo in education, PIE)에 대한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총체적 간호문제 해결능력을 위한 접근의 방법으로 시도한 임상실습지도에 대한 경험이다. 5시간의 임상실습 집담회 시간을 통해 '간호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해란 무엇인가', ''간호는 총체적 이해'란 뜻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주고 각자 의견을 발표하도록 한다. 보다 근원적인 탐구과정으로 학생들은 흥미로워하며 스스로 문제의식을 만들어가는 태도를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실습지침서에 졸업 후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과 학습성과를 성취하기 위한 총체성에 관한 기술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전인간호', '통합적용', '다양성 지식', '간호상황', '의사소통' 등과 연관된, 몸의 총체성영역과 총체적 간호를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은 '간호문화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삶과 학문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지고 싶었던 바람으로 새 간호의 지평을 여는 사색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간호문화전을 열었다. 올 1월 저서와 사진을 전시했는데 이들은 인문과 예술 콘텐츠이다. 간호문화전을 통해 간호의 몸과 영혼에 인문·예술의 강물을 흐르게 해두어 생명의 향기를 더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시회를 준비하게 된 것이다. 이 전시의 문화코드를 '진지함- 즐거움- 일깨움'으로 정했다. 사회인들과 공유한 소통과 교류에서 즐거운 가치와 아름다운 힘돋우기는 필자의 삶에 뜻깊은 경험이 되었다. 간호(학)와 동행하면서 인간이해를 위한 간호르네상스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은 것이다.

그 다음으로 PIE를 통해 감성적 인식의 발로로 인문과 예술의 표출을 간호영역에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인문과 예술로서 간호의 본질인 인간이해를 융합하는 간호의 확장된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VI. 나오며

지금까지 전국 60개 간호대학과 간호학과 및 수업연한 3년제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인문관련 교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대책으로 개설한 과목이 부족한 면은 없으나 간호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는 우려의 소지가 있었다. 현재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는 전문간호사로서 전인간호를 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인문관련교과가 충분히 개설되지 않아, 인문지향의 내용적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는 간호 자체를 치유해야 하는 시대에 다다랐다는 역설에 봉착해 있다. 최근 한국간호과학회에서 '융합적 간호'의 기치를 내세웠으며 병원간호사회에서는 '간호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고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간호의 몸과 영혼에 인문의 덕목을 새겨 생명의 향기를 더해야 한다고 본다. 간호는 생명력 간호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문적 시각에서의 간호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 자기이해를 통한 다른 세계와의 이해와 공감으로 인간의 생명력을 보듬어 조정하고 자발적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인본주의적 간호이론은 간호행위를 보고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간호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증가시켜주고 간호실제를 이끌어갈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간호교육을 통하여 생명과 간호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열린 교육이 촉구되는 것이다. '총체적 간호문제 해결능력을 위한 융합적 접근'을 위한 간호교육이 필요하며 학생 스스로 인문추구의 경험을 터득하게 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간호대학이나 학과 내에 '간호교육과' 혹은 '인문간호연구소' 분야를 특화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인문간호 관련교과가 간호교육과정 내 정착되는 간호역사의 구도가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인 간호교육의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모든 학문의 존재목적은 인간과 자연을 이해하고 인간 삶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간호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간호사는 유쾌한 감성과 생명력으로 돌봄간호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행복한 간호사(happy nurse)가 행복한 간호(happy care)를 할 수 있다. 환자의 행복한 삶은 행복한 간호사의 돌봄으로 얻어질 수 있다(Good Nurse Project).

행복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의 간호교육이 요청된다. 간호(학)의 발전을 위해 대학과 임상에서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간호교육에 대한 간호성찰과 학습적 성찰이 요구된다. 이는 간호(학)의 본질을 찾고 학문으로서의 균형적 입지와 성장을 위한 길이 될 것이다.

색인어
간호윤리, 간호철학, 간호교육

<부록 1> 간호대학 및 간호학과 인문관련교과

대학 및 학과	교과
1	수요명사특강
2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인간행동의 이해, 간호철학과 윤리,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 PBL)
3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간호전문직론, 간호문제중심학습
4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간호와 생명윤리, 환경과 인간, 개혁주의사상, 행동과학
5	환경과 건강,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간호철학과 윤리
6	인간발달, 심리학의 이해, 문화와 간호, 리더십개발, 다문화와 가족, 글쓰기와 표현,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7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8	자아와 명상 1, 2, 글쓰기 1, 2, 인간관계와 간호, 문화와 간호, 간호전문직론
9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간호와 문화, 간호와 사회, 간호와 예술
10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11	열린 생각과 말하기, 창의적사고와 글쓰기, 인간관계론, 사회와 문화, 인간과 역사, 생명과 물질, 문학과 예술, 건강과 여가
12	인간과 건강, 의사소통/인간관계 및 실습, 생명의료윤리, 사회학의 이해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와 이념, 자연과 기술, 생명과 환경
13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14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론, 간호윤리, 인간의 성장발달, 문화와 간호
15	다문화사회와 인간이해, 의사소통과 협력관계, 세계보건의료와 간호전문직, 간호전문직 통합세미나
16	인간관계론 및 실습, 치료적 의사소통, 치료적 의사소통실습, 환경과 건강, 인간관계론 및 실습, 글쓰기와 토론
17	사고와 표현 1, 2,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간호철학과 윤리, 다문화와 간호
18	독서와 토론, 회계와 사회, 세계화의 이해, 의료윤리와 철학, 다문화건강
19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상담이론과 실체, 철학의 이해, 음식과 건강
20	의사소통, 문화와 간호
21	사고와 표현, 삶과 글쓰기
22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다문화복지, 삶과 철학
23	말과 글, 인간의 철학적 이해,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심리학개론, 상담의 실제, 비판적 사고, 예술의 이해, 다문화의 이해, 생명의 윤리, 인문학강좌
24	성과 평등-인간과 성, 다문화사회의 이해, 우리말과 글, 건강과 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 (감상위주), 음악과 치유, 미술과 치유, 춤과 치유, 문학과 치유, 숲과 치유, 국제화와 간호이슈, 사회심리학, 사회와 문화, 정신건강과 동양철학, 보건의사소통론, 한국역사와 문화

<부록 1> Continued

대학 및 학과	교과
25	글쓰기, 글로벌시티즌십, 의사소통과 상담원리, 건강과 운동, 창의적 문제해결, 가족상담과 간호, 비판적 사고와 간호
26	치료적 의사소통, 간호와 건강증진, 간호상황분석
2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론, 환경과 건강, 임상간호토론
28	철학, 심리학, 사회학, 문서작성, 기술작문법, 인성교육 1, 2
29	의사소통론, 인간심리의 여행, 경청, 배려, 간호와 윤리, 다문화간호, 영적간호
30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간호와 전문직, 사회학, 심리학, 문화와 간호, 간호윤리
31	참 삶의 길, 체험형 인성, 문학적 사고와 표현, 자연과학적 사고와 표현, 글쓰기와 말하기, 행동과학, 생명윤리, 의사소통, 다문화와 건강관리
32	한의학개론, 인간관계론
33	말과 글, 의학개론, 심리학,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론
34	과학과 기술, 글쓰기, 사회학의 이해, 현대사회와 법, 논리와 비판적 사고, 심리학의 이해, 의사소통론 및 실습
35	사고와 표현 1, 2, 윤리와 사상, 사회와 이해, 과학과 기술, 정량적 사고, 인간행동과 의사소통
36	의사소통론, 사상체질과 간호, 문화와 간호, 간호와 비평적사고, 동서보완 간호학
37	글쓰기, 문학과 예술, 인간과 역사, 언어와 표현, 가치와 윤리, 국가와 사회공동체, 지역사회와 세계, 논리와 수리, 자연과 우주, 생명과 환경, 생명과학의 이해도, 삶과 죽음
38	말과 글, 다문화사회와 돌봄, 한국역사와 문화, 인간학, 인간관계론, 인류학,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의료사회사업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전통의학의 이해
39	바른말 고운말, 취미와 특기, 스피치와 매너,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지역사회봉사, 간호윤리와 철학, 스트레스관리, 다문화이해, 간호와 인성, 건강과 운동
40	대학국어, 다문화복지,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성장과 발달, 삶과 철학
41	철학, 조직과 경영, 심리학개론, 보건의사소통, 생명윤리, 성윤리, 분석적 사고와 글 읽기, 상담학, 사회학, 간호리더십, 다문화이해, 세계보건의료와 간호전문직
42	생명과학, 자연과 환경, 직업과 자기개발, 창의적 문제해결, 이미지메이킹, 생명윤리, 인성과 리더십, 다문화이해, 심리학개론, 의사소통론
43	비판적사고와 논리, 글쓰기의 기초와 실제, 사회계글쓰기, 의사소통론, 전통음악, 대인관계와 적응, 인간관계전략, 자기계발과 리더십, 윤리학의 이해, 현대심리학입문, 여성과 창업, 토론과 면접실기, 진로설계, 현대사회와 직업관
44	자연과 과학, 문학의 이해,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다문화의 이해, 생명윤리, 비판적 사고와 적용, 현대사회와 인간, 행동과학, 지도자론, 대학생활설계

<부록 1> Continued

대학 및 학과	교과
45	인성함양, 리더십계발, 읽기와 쓰기, 발표와 토론, 자기계발 1, 2, 지구와 인류의 미래,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한방간호학, 국제간호학
46	사회학의 이해, 철학의 이해, 심리교육학
4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론, 인성함양세미나
48	심리학개론, 음악감상, 결혼과 가족
49	분석과 비판의 기초, 인간학과 글쓰기, 명사초청특강, 인간심리의 이해, 자기개발능력, 환경과 인간, 철학의 이해, 문화인류학,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론, 건강과 이해, 다문화의 이해와 간호, 취업진로멘토링, 글로벌리더십, 일과 보람 있는 삶
50	글쓰기와 말하기, 스포츠와 건강, 자기개발 및 진로탐구 1, 2, 음악과 생활, 인간관계론, 의사소통론, 상담이론과 실제, 인간심리의 이해, 생활과 문화, 다문화간호
51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심리학개론, 사회문화와 간호, 생명윤리, 간호사 직업윤리와 가치관, 인간과 철학, 글표현, 사회학개론, 환경과 건강, 건강학개론
52	상담의 실제, 다문화, 인성과 자기계발, 서양미술의 이해, 언어표현법과 문학, 의사소통의 실제
53	글로벌리더, 우리말과 글쓰기, 철학, 생명윤리, 다문화의 이해, 음악의 이해, 사회학, 심리학, 환경과 건강, 성장과 발달, 인간의 이해, 간호학개론, 의사소통론,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54	생애설계지도, 자기관리실습, 창의적사고와 글쓰기, 철학개론, 인간심리의 이해, 대인관리실습, 경력관리지도
55	언어와 문화, 의사소통론, 간호윤리와 철학
56	인간관계심리, 상담이론과 실제, 생활과 건강, 의사소통론
57	음악과 생활, 전문직관, 인간관계론, 인성과 예절, 다문화의 이해, 심리학개론, 철학개론
58	철학과 심리, 자아성장개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인간심리의 이해, 논리적 글쓰기, 다문화 이해, 예술 치료
59	말하기와 글쓰기, 대학생활과 자기개발, 젠더와 사랑, 사고와 토론,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인간과 문화예술, 한국역사와 현대사회의 이해, 생명과 사회정의, 생태환경과 인간,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역량, 인간심리의 이해, 인간관계론, 다문화의 이해, 인간이해의 의사소통훈련, 상담의 실제
60	글쓰기, 역사와 문화, 인성과 자기개발, 인간관계론, 경제와 사회, 생명윤리, 상담윤리, 다문화의 이해, 비판과 창의적 사고, 간호전문직론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6권 제2호(통권 제37호) : 194–215 ⓒ한국의료윤리학회, 2013년 8월
Korean J Med Ethics 16(2) : 194-215 ⓒ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August 2013
pISSN 2005-8284 eISSN 2234-3598

The Present Conditions and Issues of Korean Humanity Care Nursing Education

PARK Myeung Hee*

Abstract

This paper considers humanistic perspectives for nursing science considering the invisible aspects of human life in scientific nursing which is heavily dependent on positivism. Humanity care is caring based o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true nature of humanity. Humanity care has to be executed at the nursing education level. For this we need to examine accreditation in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s, the educational objectives of nursing colleges, the nature of nursing, the features of nursing-science, the tendencies of modern nursing, and the views of nursing scholars. The common key-concepts of such categor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nursing professionalism, holistic care, and life. For this, I have grasp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curriculum related to liberal arts taught at 60 nursing colleges, and nursing departments, nationwide, in view of these categories. The result is that subjects such as personality and self-development, life, writing, nursing philosophy, creativity exploration, culture and nursing, and art and nursing, are insufficient. So, this dissertation suggests that there is need to open these subjects sufficiently. Nursing-education has to be based on a curriculum enabling students to consider holistic care and life from the view of nursing-professionalism. The assignments for holistic care, an independent arena of nursing, include shedding new light on the nature of nursing and having educational introspection into reestablishing the status and identity of nursing-science.

Keywords

nursing ethics, nursing philosophy, nursing education

* *Department of Nursing, Andong Science College:* ***Corresponding Author***